



제 390 호 2015년 2월 25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브라보 안산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blog.naver.com/cityansan twitter.com/ansancityhall 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02면	특집 / 새로운 시작	04면	생태·관광	08면	생활·경제	11면	종합
이웃들의 다양한 시작, 서로서로 응원해요		종이미술관·유리섬, ‘2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		남도 음식의 명가, 상상 그 이상 맛집 사계절 참맛		나누면 기쁨이 두 배 만두 2만개 빚어 소외가정에 전달	



을미년 새해에 태어난 최승이 아기의 여린 손을 엄마가 부드럽게 감싸고 있다.
사진 성연범 명예기자 <yb1244@naver.com>

이웃들의 다양한 시작, 서로서로 응원해요

3월은 또 다른 한해의 시작이라고 한다. 파릇파릇한 새싹을 닮은 신입생들이 입학하기고 하고 학생들은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기도, 사업이나 여러 일들도 이쯤 시작하기도 한다. 새로운 달을 맞이하여 이웃들의 다양한 시작을 바라보고 서로서로 응원을 해보며 나의 마음도 다시 한 번 다져보면 어떨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시작, 봄을 닮은 새내기... 한양대 신입생 최지수 양



탁상달력에 입학식 등 일정을 표시하며 설렘으로 가득 차 있는 최지수 학생

2015학년도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경제학과에 입학하는 새내기 최지수 학생(20세, 사동)을 만났다.

공부하다 지칠 때면 대학교에 들러 분수 바닥에 쓰인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라는 문구를 보며 마음을 다졌던 지수 학생에게서 상큼한 과일 향기가 났다.

Q 대학 입학을 앞둔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A 며칠 전에 신입생환영회를 다녀왔어요. 동기들과 선

배들을 만나고 나니 대학생이 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동기들도 좋고 특히 선배들이 대학 생활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친절히 대답해주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하면 동아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미팅도 하고 싶어요. 캠퍼스커플이 되어 남자친구와 교정을 누빌 생각을 하니 대학 생활이 무척 기대됩니다.(웃음)

Q 작은 시작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작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A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반장을 해봤어요. 제가 반장에 도전한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학기 초에는 저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반장 역할을 잘 해내지 못했어요. 그때 정말 나 자신한테 너무 실망했고, 이런 저를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내어 교실 앞에서 친구들을 조용히 시키기도 하고 반장으로서 담임선생님을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계속하다보니 나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친구들이 저를 믿고 잘 따라주어 1년 동안 반을 잘 이끌 수 있었어요. 졸업할 때 친구들

이 1년 동안 수고했다고 말해줬을 때는 얼마나 뿌듯하고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대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기회가 된다면 과 대표를 맡거나 학생회에 들어가서 학교생활을 충실히 할 거예요.

Q 대입에 성공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저는 후배들에게 고등학생 시절을 공부만으로 보내지 말라고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수업시간에는 수업을 충실히 듣고 시험 기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지만 시험이 끝나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놀았어요. 야간자율학습 시간에도 잠을 내어 친구 집에서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방학 때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커서 회상할 수 있는 고교시절의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때는 확실히 놀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멋진 사람이라고 아닐까요?

Q 앞으로의 계획은?

A 일단 대학생활을 정말 재밌게 할 거예요. 장학금을 목표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방학 때는 친구들과 배낭여행도 가고 싶어요. 즐겁게, 열심히 대학생활 하다가 3학년 때부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거예요.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같이 응원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꼭 합격하고 싶어요. 뒤에서 묵묵히 저를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과수원에서 묘목을 기르듯 맞춤형 교육활동을 해야’

교장퇴임 후 문해수업 강사로 나선 강형구 씨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2014년 2월)을 하고 올 3월부터 성인 문해수업을 시작하는 강형구 씨(64세, 고잔동)를 만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았다.

Q 교장으로 은퇴했는데 교직생활에 대한 소회는?

A 첫 부임지인 시골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라고 어르신이 자신에게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습에서 교사로서 자긍심을 느꼈다. 그 후 교육자의 위치를 실감하면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관리자 시절에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학교교육 분위기에 큰 변화가 시작된 시기로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 가르치는 즐거움과 배우는 즐거움을 알고, 다소의 공과(功過)가 있었으나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지고 교직에 임했다.

Q 성인 문해수업을 하게 된 계기는?

A 발전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교육활동과 배움 활동은 평생 동안 필요하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글을 읽고 쓰지 못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아쉬운 마음이 늘 있었고, 개인 사정으로 글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항상 존재했다. 그래서 사회에 유익한 나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받는 등 준비하고 있었는데, 퇴임 후 사회에서 나눔활동에 참여하던 중 선배의 소개로 문해수업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Q 정규 초등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수업 방법에 차이가 있을 텐데 접근 방법은?

A 초등학생은 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존재이므로 어



성인문해수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강형구씨

떤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초등학생 교육은 인성교육과 지식교육,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는 교육을 주로 실시하는 시기로 국가, 사회, 부모, 교사의 교육관이 근간이 된다. 마치 과수원에서 과일묘목을 기르듯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

성인 문해 교육은 이미 나름대로 완성된 존재이므로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문자교육과 같은 기초 교육, 전문분야에 대한 심화교육, 개인의 삶의 목표와 주변상황에 적응하는 환경개선 교육이 근간을 이룬다. 마치 분재처럼 다 자란 나무를 주변의 환경과 필요에 따라 어울리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탄생시키는 교육활동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인 문해교육인 만큼 주변 환경, 조건과 조화를 이루며 삶

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자가 원하는, 수준에 맞는 눈높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Q 올해 성인 문해 교육에 대한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

A 배움이란 자랑스러운 일이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일임을 느끼도록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고, 학생들의 생각과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안산시의 평생교육 목표와 방향에 관하여 이해하며 교육에 임하겠다.

Q 교육을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지 한 말씀?

A 인간은 미완성 존재이다. 그러므로 배워야 한다. 하지만 배움은 인간의 이상과 삶의 필요성에서 동기가 생성된다. 또한 배움의 성과는 개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바람직하고 유익한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배움은 누군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롤 모델이 존재할 때 학습자 효과는 극대화된다. 따라서 교육활동과 학습활동은 개인의 발전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 모두 발전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하고, 교육하는 사람과 학습하는 사람 모두가 존경받는 사회이어야 한다.

문해교육 : 글을 읽고 이해함.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중학교 입학 앞둔 고려인 자녀들이 자신들의 고민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부모님 나라에서 꿈을 키우러 왔어요

관산중에 입학하는 뗏골거주 고려인 자녀들

예비 여중생들은 여느 또래 여학생들과 다르지 않게 작은 몸짓에도 웃음이 터지고, 쉴 새 없이 재잘거려 보는 이로 하여금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한다.

지난 2월 13일 금요일 오후, 뗏골 고려인 지원센터 '너머'에서 만난 아이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모를 따라 지난해 한국으로 온 황탄야(2014년 6월 입국), 고크리스티나(2014년 2월 입국), 이악산나(2014년 9월 입국), 샤빌로바 크리스티나 양(2008년 입국)으로 14살 동갑내기다. 관산중학교 입학 앞둔 이들을 만나보았다.

Q 초등학교 졸업을 축하합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 고크리스티나 -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게 가장 힘들었

어요. 특히 수학이 어려웠어요.

이악산나·황탄야 -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그게 가장 힘들어요. 수업시간에도 알아들을 수 없어서 힘들어요.

크리스티나 - 친구들과 잘 지내요. 월일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친구들 중에서 1등을 해 상장을 받았어요. 하지만 수학은 어려워요.

Q 낯선 환경에서 지내기 쉽지 않을 텐데 평소에 고민이 있으면 누구와 상담을 하나요?

A 고크리스티나 - 저는 혼자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슬퍼서 울 때도 있어요(웃음).

이악산나·황탄야 - 말이 통하는 친구들과 얘기를 해요. 그러다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Q 중학교 입학을 앞둔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A 고크리스티나 - 중학교에 가면 나쁜 언니, 오빠들이 있을까봐 걱정이예요.

이악산나·황탄야·크리스티나 - 학교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가 제일 걱정이예요.

Q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무엇이고, 장래희망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고크리스티나 - 저는 힙합댄스를 추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할 때 행복해요. 그리고 작년에 영화 '변호인'을 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수도 되고 싶어요.

이악산나 - 저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연이 아름다운 캐나다를 꼭 한번 가고 싶어요. 저의 꿈은 의상 디자이너예요.

황탄야 - 저는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크리스티나 - 저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배우가 되는 걸 꿈꿔왔어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라고 하면 금방 흘릴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엄마도 제 연기에 깜빡 속아요.

때로는 하늘을 날 듯한 몸짓으로, 때로는 자기만의 세계에 틀어박힌 외톨이로 세상과 마주하는 아이들. 부모님을 따라 온 한국에서 또 다른 외로움과 직면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김은미 명예기자 <ami34@hanmail.net>

늦깎이 중학생 **나** 씨, “새로운 인생 시작할래요”

학습은 여러가지 일 가능하게 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 학습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 안산시 대부북동에 사는 이 모 씨(여·55세)는 올해 용신평생교육원 중학과정 3학년에 편입하는 새내기 학생이다.

이 씨의 고향은 인천 영흥도.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고향마을에는 중학교가 생겼지만 부모님은 어려운 살림으로 인해 자신을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 늘 공부가 하고 싶었던 이 씨는 지난해 말 용신평생교육원의 중등과정 신입생 모집 현수막을 우연히 보게 됐다. 자녀들도 다 커서 독립해 나가고 두 부부만 사는 단촐한 살림인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공부를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획을 전해들은 남편과 두 자녀는 대환영하며 적극 응원을 보내왔다.

이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동네 야학에서 2년간 수학한 학력이 있다. 그 실력으로 편입 시험을 치렀고 당당히 학력을 인정받아 중학과정 3학년에 편입하게 되었다. 같은 반 급우들도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동병상련하는 마음이어서 위화감이 없다. “늦깎이 중학생이지만 학교에 다니게 되어 무척 행복하다”는 이 씨는 대부도 집에서 학교까지 가깝지 않은 길이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겠다고 자신과 약속했다. 올해 열심히 공부해 기초실력을 쌓고 내년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생각이다. 늦게 시작하는 공부지만 대학에도 진학해서 계속 공부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학습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주민 힘으로 만든 새안산상록의원, 본오동에 개원

문턱 없이 편하게 들르는 사랑방 같은 병원 꿈꿔...



김철환 원장과 조합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주민들의 힘으로 직접 만든 병원이 본오동에 개원을 앞두고 있어 찾아가봤다.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든 제2진료소, ‘새안산상록의원’의 3월초 개원을 앞두고 직원들은 한창 바쁜 와중에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커다란 의료장비들이 속속 배달되고, 인테리어 공사 끝마무리를 앞두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본오동 870번지 백화점약국 건물 2층에는 가정의학과 진료실 등이 구비되었고, 3층에는 다른 병원과는 달리 조합원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45평 규모의 아담한 규모지만 3층은 카페, 운동공간, 소모임장소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돼있다. 주민들이 직접 출자하고 이용하면서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의료사협의 원칙에 따라 조합원들로 구성된 제2진료소 설립 추진위원회가 1년여 간의 회의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곳 조합의 실무를 맡게 된 신미영 씨는 “제2진료소 추

진위 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들이 너무 딱딱한 병원 이미지를 없애자는 거였다”며, “이곳은 조합원들이 지나다 그냥 들러 커피마시고 수다 떨 수 있는 사랑방같은 공간으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이곳 홍보를 담당하는 이성아 씨는 의료사협 병원의 장점은 무엇보다 환자 중심에서 이뤄지는 적절하고 충분한 진료·상담에 있다고 말한다. 이 씨는 “실제로 월파동 새안산 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원장님들을 어려워하지 않고 속 얘기를 다하고 가신다”며, “그러다보니 원장님들이 환자들의 원인적인 스트레스까지 캐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픔의 원인까지 해소되는 경우를 보게된다”고 말했다.

서울백병원에서 정교수로 진료·연구 활동을 해오다 이번에 새로 새안산상록의원으로 부임하게 된 김철환 원장도 그런 의료사협의 가치를 신뢰해 함께하게 됐다. 사람들에게 원두커피와 요리 대접하는 것을 즐긴다는 김 원장의 자상한 성격이 조합원들에게까지 전해져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직원들은 전했다.

간호사로 함께할 신선옥 씨는 “이곳이 단순히 진료활동이 아닌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며, “환자분들이 어디가 아픈지 말하기 전에 일단 가족처럼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 문의 : 새안산상록의원 ☎ 031-401-7577)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보물섬 대부도에 가면 특별한 일이 있다

종이미술관·유리섬, ‘2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돼



대부도 종이미술관 (전시 작품)



대부도유리섬 (유리공예 시연)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월의 가볼 만한 곳’으로 대부도의 종이미술관과 대부도 유리섬이 선정됐다.

한국관광공사는 2004년부터 그 달의 가볼만한 곳을 지방자치단체, 여행 동호회, 여행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주위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소개 등의 내용을 다양한 사진 자료와 함께 테마 관광코스를 만들어 주요 언론 매체에 홍보하여 한국여행의 숨은 곳을 찾아 알리고 있다.

대부도가 2월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되고, 지난해 12월 환경부 선정 생태관광지가 됨에 따라 안산시는 대부도를 진정한 보물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갯벌의 장점을 살린 생태마을 육성, 미술관·박물관 유치, 건강관리 산업 유치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종이미술관

한국 최초 종이미술관이 2014년 12월 21일 대부도에 문을 열었다. 종이와 미술을 소재로 만든 수준 높은 종이공예 예술품을 만나볼 수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제1

전시관, 제2전시관, 체험교육장, 아트숍, 한옥 체험관으로 구성돼 있다.

제1전시관은 국내외 우수한 종이 작가들의 작품과 매년 종이공예 공모전을 통해 배출된 작품들로 구성된 수준 높은 종이공예를 만나볼 수 있으며 다양한 기획전이 열린다. 현재는 미술관 소장전이 열리고 있다.

또 제2전시관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전용 전시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동요를 테마로 한 우듬지 닥종이 인형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체험교육장은 다양한 예술작품과 공예품을 직접 체험하고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며, 아트숍은 한국의 대표적인 공예공방의 핸드메이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한옥 체험관에서는 전통예절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절교실을 열 계획이다. 한옥은 숙박시설로도 이용이 가능해 한옥의 품위와 전통을 느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그네, 널뛰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윷놀이 등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놀이체험장을 준비 중에 있다.

종이미술관 최재혁 대표는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특화된 종이미술관을 대부도에 개관하고, 2월에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되어 무척 기쁘다. 전통적인 미술을 하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전통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전통 미술을 많이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이미술관 관람료는 성인 5천 원, 소인(만3세부터 18세) 4천 원, 유아(3세 미만)는 무료이며 체험비는 별도다.

유리섬

대부도 유리섬(2012년 9월 개관)에는유리의 역사와 유리조형물을 소개하는 유리미술관과 세계적 시설을 자랑하는 미국 코닝유리박물관(Corning Museum of Glass)에 버금가는 최대 규모와 수준의 극장식 유리공예 시연장 및 유리공예 체험장을 비롯하여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맥아트 미술관, 해안길을 따라 펼쳐지는 유리조각공원, 작가들의 오픈 스튜디오와 더불어 아트샵, 레스토랑, 카페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주요시설인 유리섬미술관에서는 비교적 접하기 어려운 유리공예의 역사와 유물 그리고 국내외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수집 전시하고 극장식 공연장과 유리 체험관을 두어 다양한 유리조형작품이 제작되는 과정을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유리조형 작가들에게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흥미와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외에도 맥아트미술관에서는 한국 현대유리조형과 더불어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해변을 따라 길게 뻗은 조각공원과 영화 속 주인공들의 러브스토리를 형상화한 러브로드에서는 로맨스 넘치는 여행, 자연과 하나 되는 여행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입장료는 일반 1만 원, 청소년 9천 원, 어린이 8천 원이며, 20인 이상 단체는 2천 원 할인받을 수 있다.

• 문의 : 종이미술관 ☎ 032-887-0606, 2055)
유리섬 ☎ 032-885-6262)

이선희 명예기자 <iamy70@hanmail.net>

자연과 함께하는 도심 속 둘레길 ‘상록오색길’

생태하천, 들판, 갈대습지… 다채로운 풍경, 그 길을 걷다



‘상록오색길’ 안내도

상록오색길을 걷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다. ‘상록오색길’은 기존에 있던 산책로와 새로운 코스를 연결하여 각 구간마다 색깔 테마와 독특한 명칭을 부여한 도심 속 둘레길이다. 총 5코스, 15.5km에 달하는 이 길은 안산 도심의 다양한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트래킹 코스다. 상록오색길은 이미 조성되어 있던 3개 구간 길에 갈대습지길과 본온들판길을 더해 만들어졌다. 국비 3억 원을 들여 각 구간은 목재계단 등을 이용해 연결했고, 종합안내 표지판과 코스별 방향표지판, 의자 및 정자 등이 설치되어 있다.

2코스 생태하천길은 안산천에서 호수공원에 이르는 3.5km의 길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안산천을 따라 만들어진 길이다. 산책 길 바로 옆 하천 저수지에서 송어와 잉어 등의 물고기 떼가 지나가는 모습과 물새들이 한가롭게 하천을 거니는 모습이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다. 자전거 도로도 잘 구비되어 수변공원길과 이어진 하이킹코스로도 손색이 없다.

3코스 수변공원길은 호수공원에서 갈대습지까지 이어지는 3.3km의 길로, 동화천을 따라 갈대숲이 넓게 펼쳐진 시

화호 수변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노을전망대, 갯벌전망대, 갈대 관찰로 등의 쉼터공간과 화장실도 잘 구비되어 있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야간에도 자연친화적인 조명이 곳곳에 설치되어 공원의 분위기를 더욱 운치 있게 만들어 준다. 해질 무렵에 방문하면 하천을 붉게 물들이는 석양풍경을 선물처럼 보게 된다.

4코스 본온들판길은 갈대습지에서 본온아파트에 이르는 1.3km의 짧은 거리의 길이지만 도심에서 볼 수 없는 넓은 농경지와 들판을 바라볼 수 있는 이색적인 산책로다. 2.64㎢ 농경지의 탁 트인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특히 가을철에는 황금색으로 물든 농경지를, 겨울철에는 철새들이 날아가는 장관도 볼 수 있다.

5코스 갈대습지길은 시화호 주변 갈대습지공원에 연결된 길이 2.3km의 산책로다. 갈대습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변은 갈대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며 갈대습지를 자세히 볼 수 있게 도로도 잘 꾸며져 있다. 또, 갈대습지공원 안의 다른 여러 가지 볼거리와 체험거리, 생태교육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이 구간은 어린이들과 함께하면 더 좋은 공간이다.

날씨가 풀리는 주말이 오면 가족과 상록오색길의 자연에 흠뻑 빠져보자.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전국의 숨겨진 여행명소를 소개하는 '2015 내나라 여행 박람회'가 지난 2월 12일(목)부터 15일(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자연과 사람, 문화축제가 어우러지는 안산 대부도 구석구석 행복여행 - 2015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소개

'2015 내나라 여행 박람회'가 지난 2월 12일(목)부터 15일(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려,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고 싶은 현대인에게 우리나라 전역의 숨겨진 여행 명소를 소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안산시는 뛰어난 접근성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대부도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한국관광공사에 의해 '2월에 가 볼만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대부도는 홍보를 위해 8개 부스를 메인 전시관과 동주염전 체험관으로 꾸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메인 전시관에서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대부 해솔길, 선감·종현 어촌체험마을 등 여행 관련 안산의 다양한 콘텐츠가 담긴 관광안내 책자 '즐기자 안산' '대부 해솔길을 걷다'

와 안산시 전역의 관광명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가족 안산 한바퀴' '대부 해솔길' 등의 관광안내 지도가 여행정보를 구하는 관람객들에게 제공됐다.

이밖에도 오는 5월에 열리는 '안산 국제거리극축제'와 7월의 '안산M밸리록페스티벌'의 이미지가 인쇄된 퍼즐체험 행사를 진행해 노년층부터 유치원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국제거리극축제 홍보를 위해 선보인 저글링 마술쇼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한 판타지가 됐다. 안산시립합창단은 메인 무대에서 품격 높은 공연을 진행해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 체험행사 '페달로 떠나는 보물섬 안산 대부도 여행'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들었다. 관람객들이 차를 기다려 자전거에 앉아 페달을 돌리면, 밝은 속도에 비례해

대부도 여행지 10곳에 차례대로 불이 켜진다. 관람객들은 페달로 통해 대부도를 여행한 셈이 되고, 불이 들어 온 수만큼 그랑고또 와인, 대부도 김, 동주염전 소금 등 안산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받았다. 하루 세 번 진행된 페달로 체험행사는 인기가 많아 참가자들로 길게 줄이 이어졌다. 잠실에서 온 관람객 박주영 씨(37세)는 지난 1월에 안산의 눈썰매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다며 "드라이브 하다가 우연히 눈에 땀, 도심 속의 썰매장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유리섬 박물관에 관심이 있는데 오늘 먼저 자전거로 박물관까지 가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따로 꾸며진 동주염전 체험관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관람객들은 실제 대부도 동주염전을 축소해 만든 곳에 장화로 갈아 신고 들어가 염부가 되어 소금을 넓게 퍼거나 한 곳으로 모으는 고무래질 체험 활동을 했다. 고무래질 후에는 소금을 선물로 받았고,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부모들은 메인 전시관에서 그 소금으로 색 소금-소금 꽃 기등을 만들었다.

이상희 씨(37세, 서울 마포구)는 자녀와 함께 가볼만한 여행지 정보를 얻기 위해 박람회에 왔는데 "아이가 생태체험 활동도 해볼 수 있고, 집에서 가깝기도 한 대부도가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에 제격인 것 같다"며 "봄이 되면 꼭 방문해야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서 여행관련 어록 남김 판에 '꿈을 만들어 주는 여행'이라고 적었다. 박람회 참가에 대해 "뛰어난 접근성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관광지로 적합한 안산이 잠재력에 비해 아직까지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이미지 개선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생태도시, 미생에서 완생으로 가는 길

안산시 환경재단 에버그린21 생태도시 비전 선포

안산시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이 지난 10일 '생태도시 비전선포식'을 열고, 생태도시 비전에 대한 향후 3년간의 계획을 발표했다. 안산시와 함께 생태도시 비전실현을 선포한 이번 행사는 '민과 관의 역량을 높이는 협력허브'로서의 에버그린21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산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비전선포식은 생태도시 실현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7대 도전과제를 비전토크 형태로 풀어내 참석자의 이해를 높였다.

안산시는 15년 후 안산의 미래를 '숲의 도시'로 발표하고, 안산을 사람과 자연,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생태·문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에버그린21 신윤관 대표이사는 재단의 미션을 '생태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신뢰받는 협력 허브'로 새롭게 정의하며, 생태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한 지원기지로서 재단의 정책적 역할을 강조했다. 비전 실현을 위한 4대 추진 전략으로 '시민참여 정책제안 등 정책 역량 강화', '환경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시민 역량 증진', '생태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에버그린21 생태도시 비전 선포식

역량 강화', '조직 개편을 통한 신뢰 역량 제고'를 발표했다.

첫 번째, 안산시 고유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기존의 환경인증제를 저탄소 환경인증제로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전 시민 환경교육

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가구 1환경교육'을 목표로 사회 환경교육과 학교 환경교육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세 번째, 환경재단의 정책기능을 강화해,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을 확대하고 정책기능팀도 신설된다.

이밖에 재단의 제2의 도약을 위한 7대 과제로는 '안산갈대습지 마스터플랜 수립',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유치 추진', '스마트허브 온실가스 감축협의체 역할 강화',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전문 역량 강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이클레이(ICLE)와 협력 강화를 통한 안산시 환경정책 성과 국제사회 알림', '공익성과 수익성 갖춘 신규 프로젝트 개발'을 제시했다.

이날 비전토크에서 안산시의제21의 윤기준 위원은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 보고하는 경기도처럼 안산시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신 대표이사는 "시민이 체감하고 실천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안산시민의 특징적인 지표를 개발해, 이것을 지역사회와 협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 문의 : 안산시 환경재단 에버그린21 홈페이지 (www.eg21.kr)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상록어린이도서관, 설날 맞아 전통 체험 프로그램 운영해

한복 입고 양갱만들며 절 올리는 법 배워, 학부모들 호응 좋아

짧은 시간에 제법 많은 눈이 날리던 지난 2월 9일, 상록어린이도서관 어울림 방에는 예비 초등학생과 초등학교 3학년생 12명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앉아있었다.

한복을 차려입은 박옥진 강사의 소개로 우리나라 명절과 바르게 인사하기를 배운 아이들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안녕하세요’하고 힘차게 인사하며 수업을 시작했다.

“명절하면 떠오르는 것에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하자 아이들은 “설날이요”, “추석이요” 라고 입을 모았고 생각나는 음식으로는 ‘송편’, ‘만두’, ‘떡국’ 등이라고 말했다.

참가한 12명의 아이들 중에 설을 쇠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아이들은 4명이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산에서 명절을 보낸다고 답했다.

소박한 빛깔의 조각보를 펼쳐 보이며 한국의 전통 색상인 오방색에 대한 강사의 이야기를 들은 후 아이들은 양갱 만들기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5가지 색을 유자와, 녹차, 딸기와 팥 등으로 빛깔을 낸 양갱과 양갱을 장식할 잣과 호박씨 등을 받아든 아이들은 갖가지 모양의 틀로 찍어내기 바쁘다. 서툴던 손짓이 점차 익숙해지자 옆자리에 앉은 친구를 돕기도 하고 고명을 이용해 장식에 정성을 들이기도 하였다. 단팥 친구와 함께 수업을 듣던 김가인 어린이(7세, 경수초 입학 예정)는 “설날에 할아버지 집을 멀어서 가지 못하고 사촌 집에 가서 놀다 와요. 설날이면 사촌 언니랑 오빠랑 만나 재미있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서 좋아요. 또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으니 정말 신나요”라고 말했다. 가족에게 줄 양갱을 포장한 후 한자리에 앉은 아이들은 차와 양갱을 먹으며 강사가 읽어주는 전래동화를 들으며 마무리했다.



‘오방색 양갱만들기’를 진행하는 박옥진 강사가 설날 풍습에 관해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상록어린이도서관은 봄방학을 맞은 예비초등학생과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오방색 양갱 만들기과 제기 만들기, 한복입고 절 올리는 법 배우기, 다식 만들고 차 만들기를 진행해 학부모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상록어린이도서관에서 오방색 양갱을 만드는 어린이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공부하는 즐거움 누리며 초·중학교 졸업장 받아

경기도지정 초·중학교 학력인정 교육기관, 용신평생교육원



용신평생교육원에서 열심히 수업을 받고있는 늦깎이 학생들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2007년 ‘안산시 성인 문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문해교육에 있어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 최초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초·중등 평생교육기관인 용신평생교육원에는 2015학년도를 맞아 신입생을 모집한다. 초등문해는 주간 학력인정 1단계(초등 1~2학년 과정), 2단계(초등 3~4학년 과정), 3단계(초등 5~6학년 과정)와 야간 학력인정 3단계를 운영하고 있다.

단계별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과 교과목 수업 외 재량활동을 하며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이면 초등학교 졸업장 취득이 가능하다. 2013년 시범과정을 거쳐 2014년부

터 운영 중인 중학문해과정은 주간 중학반과 야간 중학반이 개설되어 운영 중이며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이면 중학교 졸업장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고등과정도 운영 중이며 이곳에서 일정 기간 수업을 이수하면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하여 점정고시 응시 시 4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용신평생교육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초·중학교 과정을 통틀어 100여 명이 넘는다. 이들의 연령은 3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학생이라는 공통분모로 한 교실에 앉아있는 이들의 겉모습은 다르지만 공부할 때만 큼은 여느 학생들과 다르지 않다. 늦깎이 학생들은 배우고 자하는 열정으로 어렵게 발걸음 내디뎠지만 생각만큼 되지

않을 때면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무엇보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과 동료들이 있어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한다.

김성자 씨(72세)는 “용신평생교육원에서 초등과정을 거쳐 지금은 중등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수학을 공부할 때 다소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용신평생교육원에서 대만으로 수학 여행을 갔는데 여권을 만들러 혼자 갔었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신청서를 써냈지요. 스스로가 무척 대견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이 시작된 것은 1950년 6월 1일이다. 1948년 헌법으로 제정·공포되고 1949년 12월 교육법이 공포되었으나 1952년이 되어서야 교육법시행령이 제정되었다. 헌법 외 교육법에도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육을 위한 필요한 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수는 생각보다 많다. 2013년 국립국어원 추산 비문해자는 1.7%, 평생교육진흥원 추산 15.7%라는 수치의 이면에는 전쟁과 같은 국가의 특수한 상황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공부의 기회를 놓친 이들의 아픔이 배제되어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아야 한다. 안산시는 현재 초등학력인정기관 8개소, 중등학력인정기관 1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 문의 : 용신평생교육원 ☎ 031-494-0675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집 근처 노적봉에서 생태교육 공부해요

숲에서 뛰어놀며 엄마와 아이들 함께 자라나...



“아이들하고 숲에서 노는 게 가장 재미있어요. 숲에 가면 어른과 아이라는 구분도 없어지고 그냥 자유롭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과 나눔’은 노적봉에서 생태교육을 하는 엄마들의 모임이다. 2004년에 경일초등학교 지역사회학부회에서 처음 생태안내자 교육을 시행하며 시작된 모임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훌쩍 넘어서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사이 초등학생에 입학한 아이들은 고등학생으로 훌쩍 자랐고, 엄마들은 노적봉 박사가 다 됐다.

엄마들이 경일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노적봉에서 진행했던 생태교육 수업은 현재 동네 유치원과 주민센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되었다. 생태교육이란 걸 처음 접했던 엄마들은 어느덧 노적봉의 자연을 가장 잘 아는 생태교육 강사로 변신했다. 생태교육이 거창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숲에서 아이들하고 그냥 재미있게 노는 시간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심미영 씨는 “신기하게도 처음 산에 갈 때는 나무막대기로 칼싸움만 하던 아이들이 두 번 세 번 더 가다보면 풀과 나무, 곤충들을 손에 들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요즘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아 때를 많이 부리는 데, 숲에서 자란 아이들은 점점 유순해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10년 동안 노적봉을 내 집처럼 드나들던 자연과 나눔 활

동을 통해 노적봉에 사는 다양한 식물과 곤충들의 기록까지 남게 되었다. 노적봉의 꽃·나무·곤충 지도, 캘린더, 생태교육 교안 등의 훌륭한 자료들이 좋은마을만들기 사업공모의 결과물로 만들어졌다.

특히 숲에서의 활동들은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엄마들도 변하게 만들었다. 2012년에 노적봉 둘레길 조성사업이 진행되어 노적봉의 흙길이 포장되는 것을 보면서, 둘레길 반대 서명운동을 받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뒤 둘레길 폭 축소와 친환경 재료를 쓰겠다는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엄마들의 바람은 노적봉이 하나의 시설이 아닌 숲 그 대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는 것이다.

6년째 아이들과 함께 생태교육을 하고 있는 김자영 씨는 “동네에 어떤 시설물을 만들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다”며 “노적봉 곤충지도를 만들면서 의외로 장미원에서 곤충들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숲의 생물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자연과 나눔 회장 박인화 씨는 “어릴 적, 내가 산에서 개구리 잡고, 비닐포대 미끄럼타고 놀았던 것처럼, 아이들과 숲에서 같이 어울리고 자연에서 자유를 느끼는 경험은 어떤 시간보다 소중한 것 같다”고 말한다.

작년 가을에 자연과 나눔 활동을 전해 듣고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박혜연 씨는 “내가 도시에서만 살아와서 우리 아이

들에게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선물하고 싶다”며, “사실 지금은 벌레도 무서워하는 처지지만, 이 모임을 통해 거미도 떼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선배들처럼 전문적이고 용감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싶다”며 웃었다.

마지막으로 김자영 씨는 “안산에 공무원이 많은데, 그 동네 자연생태를 잘 아는 주민들을 연결해서 생태안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생태교육이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지 말고, 수시로 아이들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인 교육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자연과 나눔 회원들은 생태교육 활동뿐 아니라, 1년에 두 번 재활용장터도 운영한다. 봄과 가을에 경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재활용장터는 동네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동네축제가 됐다. 토요일 아침에 시작되는 축제에 아이들은 1시간 전부터 나와서 돗자리를 깔고 자신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진열해둔다고 한다. 이 행사에서 회원들은 자연물을 이용해 놀잇감을 만들 수 있는 2~3개의 부스도 따로 운영하고, 점심 대용으로 동네주민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간식도 만든다. 평소 잘 나오지 못했던 회원들도 그날은 말도 없이 모여서 끝까지 자원봉사로 돕는다고 한다.

자연과 나눔 회원들은 매주 화요일 10시에 모여, 생태교육안내자 교육도 진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획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노적봉 숲과 함께한 10년은 엄마들의 삶을 나눔으로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 숲에서 함께 자라고 싶은 주민 누구에게나 자연과 나눔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 문의 : 자연과 나눔 ☎ 010-8886-6624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한밤중의 119구급대원과 응급의료진

묵묵히 시민들 생명 지키는 파수꾼



단원구 초지동에 사는 김 씨(45세)는 지난 1월 31일 한밤중에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잠이 깼다. 부인은 필리핀 사람이다. “왜 그래요? 어디가 아파요?” 김 씨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새우처럼 몸을 구부렸다. 부인이 구부린 몸을 펴려고 손을 갔다 댔지만 김 씨는 신음소리만 내며 가슴을 움켜잡았고 신음하듯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119, 119” 했다. 새벽 한 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부인의 전화로 119는 쏜살같이 달려왔다.

구급대원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의심된다며 그 자세 그대로 들것에 실어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김 씨를 옮겼다. 김 씨는 다행히도 급박한 상황에서 119 구급대원과 응급 의료진의 재빠른 처치를 받아 치료가 끝나면 이전의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한다. 김 씨는 입원 후 수술과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

대다수 시민이 하루일과를 마치고 곤히 잠든 시각에도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바빠 움직이

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119소방대원이나 응급실 의료진들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응급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시시각각으로 들어온다. 갑자기 열이 40℃까지 올라 경기를 일으키는 갓난아기와 사색이 된 부모, 급체해서 호흡곤란이 일어난 사람, 골절환자, 교통사고로 출혈이 심해 긴급 수혈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져 겨울철 자칫하면 동사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한 행인 등 응급실 의료진들은 위험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다.

고대안산병원 응급실 당직의사는 “한밤중에 실려 온 응급환자를 처치하다 보면 언제 동이 터 오르는 지도 모르게 날이 밝기 일쑤”지만 “적절한 처치를 받아 빠르게 안정되어 가는 환자를 보면 뿌듯함을 넘어 피로감도 싹 날아가는 기분”이라고 말해 밤을 새워 펼치는 이들의 의료행위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임을 느끼게 했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안산은 지금 풍미작렬(風味炸裂)

남도 음식의 명가, 상상 그 이상 맛집

사계절 참맛



안산시는 다시 찾고 싶은 건강한 음식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음식문화시범거리',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사업을 통해 전통음식거리 땡이골, 대부도 방아머리, 다문화음식거리를 조성했다.

또, 매년 '전국 테마음식 경연대회'를 열어 지역 음식의 질을 높이고, 시 고유의 음식 맛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 10월 25일, 13회째 열린 '2014 전국 테마음식 경연대회'에서는 참석한 음식점들이 저마다의 비법으로 특색 있는 음식을 선보이며 기량을 발휘해, '상상 그 이상 맛집(대상)', '최고 맛집(금상)', '우수 맛집(은상)', '인기 맛집(동상)'을 받은 맛집이 주목을 받게 됐다.

이에 안산의 맛집을 찾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 앞으로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기대해보기로 한다.

우선 소개할 문화광장 맛거리 초입에 자리한 '사계절 참맛'은 남도 음식의 명가로 정평이 자자한 곳이다. '2014 전국 테마음식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맛집 입구에서 '상상 그 이상 맛집' 현판이 주인보다 먼저 손님을 맞는다.

손님이 뜬한 평일 오후, 이슬기 대표는 분주하다. 설 명절 선물로 보리굴비와 양념계장, 간장계장을 포장해가는 손님들을 응대하랴 쉴 틈이 없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 3대가 함께 운영하는 '사계절 참맛'은 음식뿐 아니라 신선한 식재료 주문이 넘친다.

목포항에서 나고 자란 아버지의 까다로운 입맛과 20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어머니의 손맛, 80세 할머니께서 담근 고추장과 각종 양념이 이 맛집의 운영 노하우다.

매일 새벽 목포 수협 공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올라오는 수산물만은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신선하다. 그러나 산지에서 공수해 온 식재료는 품질검사를 거친 뒤에야 주방으로 입성할 수 있다. 김치는 해남 배추에 다 무안 고추를 직접 갈아서 담근다.

이진규 씨(52세, 고잔동)는 "몇 년째 이 식당에서 명절 선물을 사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장과 굴비 14상자를 샀네요. '사계절 참맛'은 제가 다녀본 전라도음식점 중에서 최고입니다. 연탄불고기, 꽃게살 비빔밥, 갈치조림이 참 맛있고, 조미료 대신 육수로 맛을 내서 그런지 소화도 잘 됩니다"라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테마음식 경연대회에 출품했던 낙지호롱과 육낙 이외에도 계장과 민어요리, 갈치조림, 연탄불고기가 유명하다. 주 메뉴에 팔려오는 반찬도 최소 9첩으로 상차림을 하며, 비빔밥 시금치, 톳, 매생이, 감태 등 식자재를 아끼지 않는다.

낙지를 대파에 말아 연탄불에서 초벌구이를 한 낙지호롱과 영암 음식인 육낙(육회낙지탕탕이)은 남도 음식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끝없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대표메뉴이다. 낙지호

롱은 청결을 위해 나무젓가락 대신 대파를 사용한다고 했다. 남도음식이지만 간수를 뺀 소금을 사용해 염도를 낮추고, 조리방법을 개발해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메뉴를 선보인다.

이슬기 대표는 "손님들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할 때 기분이 정말 좋아요. '식당이 좁으니 넓혀서 이전해라, 메뉴를 간소화해서 체인점을 늘려라'는 조언을 해주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복잡하더라도 수작업으로 손맛을 더해가면서 역사가 묻어나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남도음식의

명가로 우뚝 서고 싶습니다"라며 "믿음과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님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발로 뛰겠습니다"고 말했다.

'상상 그 이상의 맛집'으로 뽑힌 '사계절 참맛'이 사계절 진정한 맛을 파는 곳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본다.

- 문의 : 사계절 참맛 ☎ 031-401-9123
- 주소 : 단원구 광덕3로 145-5(고잔동 705-4)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외식업체 1:1 맞춤형경영컨설팅 대상업소 모집 안내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경영개선이 필요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외식업체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5 외식업체 경영컨설팅
- 운영기간 : 2015. 4 ~ 2015. 9
- 모집업소 : 15개소 (일반음식점)
- 사업비 : 2억원

2. 신청자격

- 안산시 단원구에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 중 경영개선이 필요한 영업장 면적 66㎡ 이하이거나 종업원 5인 미만인 업소

3. 선정기준

- 영업소 규모 66㎡(20평)이하 우선 선정, 사전조사에 의한 선정(영업주 개선의지, 매출상태)

4. 지원 제한대상 업소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체인점(프랜차이즈)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 기타 컨설팅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5. 컨설팅 내용

- 컨설팅 전문가가 현지 업소에 출장하여 상권분석, 경영분석, 메뉴 분석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실시하여 새로운 영업 전략 및 개선(안) 제시

6. 접수 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5. 2. 25(수) ~ 2015. 03. 13(금)
- 접수처 : 안산시 단원구 환경위생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팩스(F:481-6575) 이메일(srang62@korea.kr)

7. 제출서류

- 컨설팅 신청서, 업소 소개서 각 1부 (서류는 단원구청 홈페이지나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에 비치됨)

8.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 처리

※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환경위생과 ☎031-481-6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안산지역사연구모임’

10년째 매월 문화유적지 답사… 정주의식 일깨워

‘안산지역사연구모임’이 지난 2월 7일 안산 역사와 관련 해 서울 정동, 명동 답사를 다녀왔다.

‘안산지역사연구모임(이하 안사모)’은 안산을 사랑하고 안산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뜻을 합쳐 만든 자발적인 시민연구모임으로 매월 1회 안산역사와 관련된 문화유적지를 답사한다.

안산시가 공업도시와 환경오염도시로 인식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역사연구자, 문화관광해설사, 일반 시민 몇몇이 함께 지역을 공부하고 답사활동을 하고자 만남을 시작했다. 이들은 안산의 뿌리와 옛 전통을 살리고, 역사와 문화를 찾아 시민에게 알리고, 자라나는 세대에 정주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 2006년에 동아리를 결성했다.

‘안사모’는 현재 카페 회원만 300여 명이 넘고, 약 30여 명이 정기적인 답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한다. ‘안사모’의 산파 역할을 해온 안산향토사연구소 고문 정진각 선생을 비롯해 국민대 홍영의 교수, 원곡고 김진호·신대광 교사, 문화관광해설사, 학생 등 많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안사모’ 결성 초기에는 지역별, 인물별, 유적지별, 테마별로 안산시 전체를 답사했고, 2~3년 전부터는 안산과 관련 있는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시흥시(옛 군자면), 화성시(3·1 운동 관련), 하남시(안산김씨 관련), 수원시(정조와 화성 관련) 등을 답사했고, 작년부터는 외연을 넓히기 위해 서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일교류 차원에서 매년 겨울방학에는 일본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속의 한국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안산지역사연구모임 회원들이 환구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경, 오사카, 나라, 교토, 고베, 시모노세키, 규슈 일대를 답사했다.

안산초등학교 개교 역사 바로 잡기, 대부도 김완수 공덕비 문제, 매년 삼일절에 자체적으로 기념식과 기념행사를 주도적으로 여는 등 안산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안사모’의 행보는 끝이 없다.

이번 서울 답사는 한양 성곽, 북촌에 이어 세 번째 서울 답사로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건축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시간-공간-인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양 성곽 답사는 성곽 축조에 안산 사람들이 노역을 한 것과 관련해 성곽 축조 방식을 통해 안산의 성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북촌 답사는 개화기 개화세력이 추진한 갑신정변, 3·1 운동과 안산의 인물을 함께 살펴보았다.

3월 답사는 한성 백제박물관을 찾아 백제에 속해 있던 초기 안산과 백제와의 문화적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 풍납토성, 몽촌토성을 둘러보면서 토성의 축조방식, 석촌동 고분을 통해 묘제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원일중학교 신대광 교사는 “서울 지역 답사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 현장, 인물을 살펴보기 때문에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군산, 강화도 등 여러 지역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안산지역에 대해서도 더 심화해 다시 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산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카페 공지사항에 댓글로 신청하면 된다.

*** 환구단** - 1897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하면서 황제 즉위식을 지낼 수 있도록 조성된 제단

• 문의 : 안산지역사연구모임 (cafe.daum.net/ansanhis)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세월호 300일, 시청 앞 촛불문화제 열려

함께 만드는 ‘하늘 땅 별들의 이야기’



세월호 300일, 시청 앞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 300일을 맞아, 지난 9일 동네촛불문화제 ‘하늘 땅 별들의 이야기’가 안산시청 세월호열린공간에서 열렸다.

이날 문화제는 와동·선부동·고잔동·일동·상록수에서 마을사람들의 문화제를 진행했던 안산동네촛불과 나무움직임연구소, 민주노총 안산지부, 세월호 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눈이 내린 후 한파로 길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야외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는 2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특히 단원고 학생 20여 명을 포함한 많은 중·고등학생들도 이날 자리를 지키며 분향소까지 이어진 행진에 끝까지 참여했다.

안산시민대책위 김영호 공동대표는 이날 문화제를 열며 “지난번 열렸던 토론회를 보면서 많은 안산시민들이

여전히 세월호를 잊지 않고 철저하게 진상규명 해야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며, “지금은 추위에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움츠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안산 시민의 힘이 밖으로 나오고, 그것이 힘이 돼서 세월호의 진상이 낱알이 밝혀지게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단원고 박성호 군의 엄마 정혜숙 씨가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호엄마는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어처구니없는 부패의 현실을 지켜보며 ‘어떻게하면 우리를 지킬 수 있나’가 가장 큰 화두로 우리가 숨에 여운을 남기게 됐다. 사회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이 사회를 그냥 놔두면 세월호 참사는 또 다른 엄청난 참사의 전조예 불과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일어설 수 밖에 없는 이유”라며 “자식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아

무것도 못하고 지켜봐야했던 가족들은 진실이 밝혀질 때 비로소 치유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의 이웃이 이 고장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불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세 번째 마당으로 엄마의 노란 손수건 회원들이 준비한 노래공연이 이어졌다. 실종자 9명의 얼굴이 그려진 별 모양 손 피켓을 든 엄마들은 ‘약속해’ 등의 노래를 부르며 안산시민으로, 엄마로 언제나 세월호를 기억하고 함께 진실의 문을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몸짓 거리극 ‘삼심할미와 하늘땅별들의 만남’ 공연이 시작했다. 공연은 삼심할미가 하늘의 아이들과 땅의 엄마가 만나도록 세상의 아름다운 기운을 모으고, 음양오행으로 만든 다섯 마을이 솥대를 세워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이 거리극은 일동과 고잔동의 마을주민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 커다란 탈을 쓰고 솥대를 들고 춤추며 만들었다. 공연을 연출한 이효립 나무움직임연구소 소장은 “다섯 아이들은 다섯 마을을 상징하는데, 이 다섯 아이들이 마을로부터 희망을 불러오고, 엄마들이 다시 기운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다.

문화제가 끝난 후, 170여 명의 참가자들은 합동분향소까지 행진에 나섰다. 풍물마당 ‘터주’가 앞장선 가운데, 참가한 시민들은 희생된 아이들을 상징하는 나비와 별 등의 상징물과 세월호 이미지의 판화가 그려진 만장기를 손에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합동분향소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분향을 마친 뒤에는 유가족 대기실에 모여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행진에 참여한 한 단원고 학생은 “오늘 학교 1,3학년 친구들이 많이 와서 뿌듯했다”며, “유가족들이 많이 지치셨을 텐데, 이제 저희 차례인거 같다”는 다짐의 말을 남겼다.

세월호 300일, 안산 공동체의 희망 만들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이 달엔 어떤 책을 읽을까’
중앙도서관 추천도서

2월 14일은 ‘발렌타인 데이’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선고받은 날이기도 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큼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찍힌 광고를 주요 일간지 1면에 실었고, 온라인에서도 외국의 축제를 즐기기도는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는 날로 정하자는 여론이 일었다. 1년이 지났다.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영웅’이 중국 하얼빈(哈爾濱)에서 중국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책을 읽으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던 우리의 영웅들을 만나보자.

아동

영웅
한아름 / 처음주니어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 뮤지컬 ‘영웅’을 동화로 엮었다. 우리나라 뮤지컬의 역사를 새로 쓴 ‘명성황후’팀이 그 대본을 동화로 만든 이 책은 안중근의 나라 사랑과 뮤지컬의 감동을 그대로 전해 준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화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까지 내놓은 안중근과 뜻을 함께한 젊은이들의 가슴 뜨거운 싸움.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 등 실제 인물과 왕웨이, 설희 등 가상 인물들이 조선, 일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넘나들며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들이 숨 막히게 이어진다.

청소년

10대와 통하는
독립운동가 이야기
김삼웅 / 철수와영희



이 책은 3·1 혁명, 해외에서의 독립운동, 무장투쟁과 의열투쟁, 임시정부와 통일운동 등으로 주제를 나누어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독립운동가 19명을 선정해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에 대해 알려준다. 저자는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올바른 역사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제시대’는 ‘일제 강점기’로, ‘3·1 운동’은 ‘3·1 혁명’으로, ‘을미사변’은 ‘명성황후 살해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인

윤동주 평전
송우혜 / 서정시학



이 책은 북간도의 역사와 당시의 시대상황, 일경의 극비취조문서, 일본 경도재판소의 판결문 등을 비롯한 각종 자료들에 대한 예리하고 집요한 추적과 분석을 통해 민족시인 윤동주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문학의 순결한 초상이다. 시적 기질을 지닌 부친과 따뜻하고 너그러운 인품의 어머니, 스승 명희조의 날카로운 역사 인식, 고종사촌 송몽규, 성악 전공의 동경 유학 여학생, 웃는 얼굴로 한인들의 혼을 빼던 일본 대륙낭인 일고병자랑, 윤동주의 작품을 소중하게 보존해낸 정병옥 등 주변 인물들과 함께 살아간 윤동주의 삶을 그려냈다.

•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 031-481-3864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ASAC우수소극장 시리즈10

연극 ‘먼 데서 오는 여자’

노부부의 기억과 시대의 역사가 어우러진 이야기

공원 벤치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 여자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계속 생각에 잠겨있다. 그러다 옆 남자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 남자는 오래 전 중동으로 일하러 떠났던 여자의 남편이다. 이들은 서로의 기억을 오가며 삶에서 기억하려고 애썼던 일들과 잊으려고 애썼던 일들을 나누는데... 비록 두 명이지만 배우들이 뿜어내는 마지막하고 힘찬 연기의 앙상블이 무대를 꽉 채운다. 또, 개인의 역사에 시대의 역사를 엮는 스토리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해 줄 것이다.

- 일시 : 3월 19일(목) 오후 8시 / 3월 20일(금) 오후 3시, 8시 / 3월 21일(토) 오후 3시, 7시 / 3월 22일(일) 오후 2시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 관람료 : 전석 2만5천원
- 연령 : 13세 이상 • 문의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 080-481-4000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밀도 있는 구성과 연출, 관록의 연기파 배우 이대연&이연규 열연 ‘먼 데서 오는 여자’는 배삼식 작가에게 ‘제8회 차범석 희곡상(연극 부문)’을 안겨주었고, 배우 이연규가 ‘제51회 동아연극상’ 연기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허삼관매혈기>, <열하일기만보> 등 배삼식 작가의 밀도 있는 구성,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을 받은 <하얀앵두>의 김동현 연출, 관록 있는 배우들의 열연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춰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우수연극으로 초연 당시 연일 매진행렬을 기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절제된 감정연기로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대연 배우(남편 역)와 기억과 망각을 헤매며 폭 넓은 감정 변화를 겪는 이연규 배우(아내 역)의 연기가 어우러져 오랜 시간 쌓아온 두 배우의 연륜과 연기의 힘이 작품에 고스란히 묻어난 진정성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독/자/투/고

안산시민 여러분! TV와 이혼해 보세요

“TV 스위치를 닫고, 인생의 스위치를 열라!(Turn off TV, Turn on life)”
이처럼 매력적인 문구로 미국 시민단체인 TV 끄기 네트워크가 TV 안보기 운동을 시작한 건 벌써 20년 전인 1995년이다.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다. 평소 TV를 별로 안좋아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알게 모르게 TV에 손이 가는 우리 가족들.
남편과 나는 솔직히 어제도 오늘도 습관처럼 TV앞에 앉았다. 주부인 나는 드라마에 익숙하고, 남편은 칼 싸움 하는 사극에 빠져 석고처럼 굳어져 있다.
그것이 끝나면 우리 부부는 약속처럼 또 채널을 돌려서 다른 프로에 몰입한다.
이 끊기 힘든 바보상자에 빠져들. 이게 일종의 마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뒤늦게서야 내가 너무 타성에 젖어 사는구나 하는 자각이 들었다. 쫓쫓, 이런 한심한 주부 같으니라구...
언젠가 광고 카피문구에 ‘자동차와 이혼하기’가 있었는

데 이제 우리 삶에서 TV와도 이혼을 해보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 반성을 하던 얼마전 일이다. 교육방송 EBS에서 가정에서 TV끄기 실험을 했더니 가족들의 생활이 180도 바뀌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다. 귀가 솔깃했다. 아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TV를 끄고 나니 가정환경이 바뀔 정도라면 분명 우리 부부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퍼뜩 든 것이다. 실험 결과 TV리모콘을 쥐고 살던 가장은 아이들을 돌보거나 청소를 하고, TV소리 때문에 책 읽기를 싫어하던 아이들은 책 읽는 습관이 저절로 생기더라.
단박에 실천에 옮겼다. 남편도 전적으로 공감하며 따라줬다. 1주일, 2주일, 한달째. 정말 우리집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애들이 달라지는 걸 보니 부모로서 너무나 미안했고 부끄러웠다.
그리고 한가지 더. ‘TV끄기’를 실천하면서 아예 아이들한테도 ‘PC앞에 앉지 않기’운동을 시켜보기로 했다. 스마트폰과 PC에만 열중하는 초등학교 아이, 채팅을 즐

기는 고등학생 아이. 게임에 빠져 3일, 4일이라도 죽치고 눌러앉아있는 요즘 청소년들, 한마디로 폐인에 가까운 청소년 자녀를 이제 제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일주일 3일을 ‘PC앞에 앉지 않기 운동’을 했더니 이것도 아이들을 변화시켰다. 게임과 채팅에 별개져 있던 아이들의 눈이 점점 맑아지기 시작했다. 세상을 뒤흔드는 극단적인 청소년들의 범죄도 알고보면 TV와 PC를 통해 배운 모방범죄란다. 그로부터 멀게하고 건강한 정신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부모 몫이라는 걸 실천하니 마음이 뿌듯했다.
TV 끄기, PC앞에 앉는 횟수 줄이기를 우리 안산 시민들이 적극 활용해봅시다. 자녀와 대화의 시간도 늘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져 가정이 더없이 화목해지니까. 아이들한테 ‘공부해라’라고 말로만 다그칠 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역시 중요하다.

유병희(단원구 이석로 14)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나누면 기쁨이 두 배

안산시민 만두 2만 개 빚어 독거노인·소년소녀가정 등 1천 가구에 전달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이 모아졌다. 지난 2월 13일 시 청사 2층 대회의실과 단원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안산시민 5백여 명이 모여 만두 2만 개를 빚었다. 고기와 두부, 김치, 숙주 등으로 속을 채우고 정성으로 빚은 ‘사랑의 만두’는 명절이면 더 외롭고 쓸쓸해지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1천여 가구에 전해졌다.

매년 설이면 집에서 만두를 빚는다는 이수기 씨(50세, 와동)는 “이웃을 돌아보는 이 자리가 감사하고 뜻 깊고 보람돼요”라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이날 행사는 안산 전역에서 음으로 양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지역주민들을 주축으로, 1·2차로 나뉘어 2곳에서

‘따로 또 같이’ 진행됐다.

안산시돌보미연대와 단원구노인복지회는 복지회관에서 1차로 만두 1만2천 개를 빚어 어려운 이웃과 나눴고, 이중 일부를 쪼서, 2월 14일 진도 팽목항에 도착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 도보행진단에게 보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2차로 적십자사, 코레일 봉사회, 단원보건소 시민건강지킴이 등 여러 단체 회원들이 함께해 만두를 빚었고, 이·취임하는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센터 직원들이 동참했다.

인터넷을 통해 ‘사랑의 만두 만들기’ 행사에 자원한 이상욱, 주재민 군(초지고 1)은 “고1 겨울방학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자원봉사활동에 지원했는데, 이웃과 나누는

행사에 많은 분들이 기쁘게 참여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뜻 깊은 행사에 함께 하게 돼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라며, 각 테이블을 돌면서 다 만들어진 만두를 열심히 포장했다.

안산 스마트허브에 공장을 두고 있는 서울우유와 대성전기, 신승푸드 등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장영숙 자원봉사센터장은 “가구 당 20개 쯤 적은 양의 만두지만, 이웃이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역주민들이 기여 자원봉사에 나섰고 후원사의 지원이 더해져 오늘 이 행사가 이뤄졌다”며 “작은 것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사랑하는 사람과 걷고 싶은 곳

안산별빛마을에서 빛의 향연을 만끽하다



연인들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밸런타인데이, 부곡동 수인로변에 위치한 안산별빛마을에는 별빛아래 손잡고 거니는 연인들과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빛의 향연을 만끽하고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입장객을 맞이한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열 네 송이 해바라기’, ‘밤의 카페테리아’ 등과 함께 그림 속 풍경이 되어 사진촬영을 할 수도 있다. 또한 토끼, 강아지 등 동물과 만화영화 캐릭터 등 다양한 콘셉트의 포토존은 어린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첫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걷는 길, 사랑을 고백하는 길, 빛의 숲과 가을정원, 호박마차, 눈사람, 펭귄마을 등 구석구석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에 손색없이 꾸며져 있다.

가족과 함께 별빛마을을 찾은 부곡동에 사는 고은정 씨는 “아이가 어리고 날씨가 추워서 멀리 나가기 힘든데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어 찾게 되었어요. 저녁 먹고 산책하기도 좋고, 아이들 사진 찍어주기 좋은 코너가 많아서 좋네요. 다양한 색깔의 불빛을 처음 보는 아이들이라 굉장히 신기해하네요”라고 말했다.

입장은 오전 10시부터 가능하고 평일과 일요일은 오후 11시 폐장, 토요일은 오후 11시 30분에 폐장한다. 점등은 일몰 시부터, 소등은 오후 11시 경이다.

밤이 되면 딱히 갈 곳이 없어 아쉬워했다면 별빛이 쏟아지는 별빛마을로 발걸음을 옮겨 보는 것은 어떨까.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을 기억해
유리섬 맥아트미술관,
별별사진 공모

유리섬 맥아트미술관은 새해를 맞이하여
‘별별사진’을 공모한다.
접수 된 사진은 공모기간이 끝난 후,
미술관의 작은 공간에서 전시된다.

- **공모기간** : 2월 1일 ~ 3월 31일
- **발 표** : 4월 22일(총 10장)
- **공모장소** : 유리섬 맥아트 미술관 야외조각공원
- **주 제** : 야외조각공원의 조각상들과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별별 사진 찍기
- **참여방법** : 유리섬 맥아트 미술관 야외조각공원에서 조각상들과 사진을 찍어 유리섬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기. 당첨자는 유리섬 홈페이지와 네이버 유리섬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상 품** : 당첨자 사진 1장당 미술관 무료입장권 2매(1인 1매) 체험권 1매(일부 제한)

◇ **문 의** : 대부도유리섬 ☎ 032-885-6262

이선희 명예기자 <iamy070@hanmail.net>

외국인 주민들의 16개국 미니 정상회담

안산시 양방향 소통을 위해 외국인주민 대표자 선출



외국인주민이 많은 16개국을 대상으로 대표자를 뽑고 위촉식을 가졌다.

안산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사회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 외국인주민이 많은 16개국을 대상으로 대표자를 뽑고 위촉식을 가졌다.

안산시는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도시로 2014년말 등록외국인만 7만56명에 달하고 국적취득자 등을 포함하면 8만 명, 전체인구의 10% 이상인 82개국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제글로벌 도시이다.

안산시는 전국 제일의 다문화 도시답게 2005년부터 외국인주민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상담, 무료진료, 축제, 체육대회, 한글, 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의 날 행사, 외국인근로자 어울림 마당 등 종합 축제와 행사를 중앙 부서와 연계해 개최하고, 태국 송크란 축제, 인도네시아 원데이 등 국가별 축제를 각국 대사관과 공동개

최하여 문화적 다양성 이해와 자원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많이 모여 살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2만~5만 명이 모이는 안산역 앞 일대를 다문화 특구로 지정하여 외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한국 문화가 만나는 문화적 '풍전'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다문화 특구의 전체 인구는 75%가 외국인이며, 82개국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적 다양성은 세계적 추세인 이주사회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관련 정책 전파와 외국인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제한이 있었고, 국가별 축제와 체육대회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많아 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여 대표자를 위촉하게 되었다.

이날 위촉식에 참여한 안산시 관계자는 "국적을 떠나 안산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산시민이다. 인권과 복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가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여 선진 다문화 도시로서의 안산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하기를 당부하였다.

외국인주민센터 관계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될 국가별 대표자 협의회 회의에서 외국인주민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는 우선 국가별 주간 운영, 외국인 주민 우편사서함, 축제 공동개최, 종로별 국가대항 체육대회 등을 공동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 자료제공 :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기증받은 중고PC통해 나눔 기쁨 실천해 사랑의 그린PC, 저소득층 무상보급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15년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이 실시된다. 이번 그린PC 보급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기증받은 중고PC를 정비하여 정보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PC를 보급한다. 보급수량은 1,730대이다.

PC 보급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고 지난해에 사랑의 그린 PC를 보급 받지 않았어야 이번에 지급 받을 수 있다.

개인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상이유공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올해부터는 고령층(65세 이상)이라도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 비영리단체 등이다.

사랑의 그린PC 홈페이지(<http://lovepc.ni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신청서 작성 후 팩스(031-8008-2159), 우편(442-781)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정보기획담당관 사랑의 그린PC 담당자) 신청도 가능하다. 인터넷 다음(daum)에서 사랑의 그린PC로 검색하면 사랑의 그린PC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선정자에게는 오는 4월 6일 경에 개별 문자 안내를 한다. 접수 순서와 보급 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보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후 10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PC를 보급할 예정이다.

• 문의 : 경기도 정보기획담당관 사랑의 그린PC
(☎ 031-8008-2891)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Q&A

Q 1.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일자리 안내 받을 곳이 있나요?

A 안산일자리센터를 방문해주시면 종합적인 일자리 정보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09:00~18:00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시청 일자리센터 방문이 불가하시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취업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10:00~17:00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25개동 중 7개동이 미운영이오니 사전에 일자리센터(031-481-2882)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 2. 자원봉사를 하고 싶는데 절차를 잘 몰라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1365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해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www.1365.go.kr 가입을 하시면 자원봉사 참여방법, 지역별 자원봉사, 지역별 수요처 검색 등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 (031-411-1365)로 하시면 됩니다.

Q 3. 안산 시내버스 노선을 알고 싶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A 전화 : 1688-8031(경기버스정보), 인터넷 : www.gbuis.go.kr(경기버스정보), 스마트폰 : 어플리케이션 GBUS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하모니콜’ 5대 증차… 총 25대 차량 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도와

안산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도울 특별교통수단 ‘하모니콜’ 5대를 추가로 구입해 오는 4월부터 운영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모니콜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교통수단으로 지난 2011년 2월 기아자동차가 만든 카니발 6대로 운영을 시작해, 2011년 하반기에 2대를 늘리고 2013년 상반기에 7대, 하반기에 5대를 증차해 20대가 운영 중이었다. 이번 증차로 총 25대가 운행되면 수요가 많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더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산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 중인 하모니콜은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와 의료기관에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승차가 어렵다는 진단서를 받은 사람 등



혼자서는 자유로운 외출과 이동이 쉽지 않은 사람이 이용대상이 된다.

이용신청은 하루 전에 예약을 통해 받고 있다. 시간은 평

일과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기본요금은 10km까지 천 원이고, 5km가 늘어날 때마다 2백 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하모니콜을 이용해 갈 수 있는 곳은 안산시 전역과 인접 시·군,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평택항, 광명역 등 주요 광역교통 환승지점이며, 재활 또는 진료 등의 목적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시설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 예약문의 : 안산도시공사 하모니콜센터 (☎1588-5410)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2015년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생명사랑 튜터교실’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인 ‘생명사랑 튜터교실’을 실시한다.

생명사랑 튜터교실은 청소년들이 죽음과 자살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과 친구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생명존중교육이다.

교육은 1교시에 ‘너무 힘들면 죽어도 되는 걸까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나만 죽으면 끝나는 건가요?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도와줄까요?’ 등의 질문을 통해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접근한다. 2교시에는 자살 위험 친구를 돕기 위한 그룹 토의를 실시한다. 그리고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는 지난 2014년에 초·중·고등학교 40개교에서 ‘생명사랑 튜터교실’을 실시했고, 이 중 26개교 학생들이 만족도 조사에 응답하여 93%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015년 생명사랑 튜터교실 교육이 필요한 학교 및 청소년관련기관은 안산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assp.or.kr/)



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 또는 FAX로 접수하면 된다.

안산시자살예방센터는 안산시가 지역사회 자살문제에 대해 한 발 앞선 인식을 바탕으로 자살시도자 상담, 생명사

랑 문화조성과 자살예방교육을 위해 지난 2013년 7월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사1동 1584)에 건립됐다.

• 문의 : 안산시자살예방센터 (☎ 031-418-0123)

이선희 명예기자 <iamy070@hanmail.net>

IT기반 당뇨 자가 관리 서비스… 시민의 호응 높아



상록구 본오동에 사는 주부 임 씨(55세)는 7년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가 발견된 후 지금까지 약을 복용하면서 당뇨병 관리를 해왔다.

건강검진에서 알려진 높은 혈당수치에 깜짝 놀라 처음에는 나름대로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으로 뱃살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꾸준하지도 체계적이지도 못한 혼자만의 관리는

작심삼일이 되어 한계를 느끼게 했다.

그러던 중에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의 IT 기반 자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알게 되어 바로 등록하고 담당자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혈당관리에 자신을 갖게 되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혈당체크기는 과식하거나 운동을 건너뛰는 등의 생활태도를 바로 반영해 혈당수치로 보여줌으로써 긴장감을 갖고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IT기반 관리서비스 담당 간호사의 권유로 6개월간의 당화혈색소 관리에도 도전해 처음 시작할 때 7.4%이던 혈색소 수치를 3개월이 지난 후에는 5.9%까지 낮춰 부상으로 상품권도 받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관리중이다.

당뇨는 우리 몸에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돼 간에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데 이 때 간여하는 물질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아예 분비되지 못하면, 우리 몸은 혈액 속에 녹아있는 당분을 오줌을 통해 체내로 배출함으로써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당분이 몸 밖으로 배출됨으로써

당뇨환자는 많이 먹어도 쉽게 허기가 지고 기력이 쇠하게 된다.

안산시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는 당뇨환자들에게 IT기반 자가 관리를 실현시켜 환자들의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해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5년 12월까지 30세 이상 65세 미만 센터 등록자 중에서 당화혈색소 6.5%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IT기반 자가 관리 서비스는 환자 본인이 혈당기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측정결과를 전송하면, 센터 담당자가 관리 웹으로 혈당 측정결과를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환자들에게 심리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냄으로써 자가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켜 건강을 지키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 문의 : 안산시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

(☎ 031-416-9081)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안전문제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즘이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시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하며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재난사고를 예방, 사건사고를 경계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전관련 만화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 안산시도 '안전한 사회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이 만화를 '브라보안산'에 게재 한다.



강백수

이름도 백수, 아직까진 직업도 백수. 가진 건 없지만 어디 가서 인를 떨어진다 소리는 못 들었지. 그런데 이놈의 얼굴 때문에 체녀귀신이 붙어버렸네. 뭐라고? 나한테 사람들의 생명을 같이 구하라고?



왕박사

한국대학 최연소 교수에 재난방지위원인데, 강백수랑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체녀귀신하고 떠돌아다니게 되었어. 어쩔 수 없지. 내 풍부한 과학상식으로 위기를 헤쳐나가야지.



염라대왕

나도 가끔 등장하지.



체녀귀신

교통사고를 당해 시집도 가기 전에 염라대왕에 불려간 체녀귀신이야. 지옥으로 가기 직전에 염라대왕이 조건을 하나 걸었는데 재난으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라는 거야. 그것도 370명이니!



자료제공 :  국민안전처

물이 바위를 깨뜨린다고?
봄철 낙석주의보



왕박사의 한마디

봄철 등산의 복병 '동결융해'

지난 5년 동안 전국의 산악에서 발생한 낙석·붕괴사고는 66건으로 무려 15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주로 해빙기에 발생하는데 원인은 동결융해(凍結融解)! 겨우내 암벽 틈새로 스며든 물이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바위틈을 벌려놨다가, 날이 풀리면 얼음이 녹으면서 얼음에 붙어 있던 바위가 떨어져 굴러내리는 현상입니다.



(미세한 균열 사이로 물이 침투) (얼음이 얼며 균열이 커지고, 암석은 붕괴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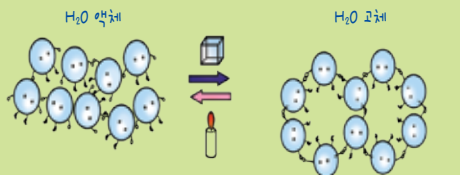


•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봄철 낙석사고로 15명이 사망했다.

오전 10시~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위험

동결융해는 물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물 분자들은 육각형 구조를 만들어서 부피를 키우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이 구조를 풀어서 부피가 다시 작아지죠. 따라서 3~4월 등산을 할 땐 햇빛이 강해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얼음이 녹으면 산에 있는 바위뿐 아니라, 간설 현장에서도 사고가 잦으니, 주의하세요!



상록수보건소, 이튼튼 구강건강교실 운영 안내

상록수보건소에서는 관내 보육, 교육기관 유아들에게 올바른 구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튼튼 구강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를 참고해 신청하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5. 02. 16(월) ~ 02. 27(금) (전년도 미 실시 기관 우선)
- 교육일시 : 2015. 3. 19 ~ 11. 26 매주 목요일(10:00 ~ 11:30)
- 장 소 : 상록수보건소 구강보건실
- 대 상 : 관내 어린이집 6~7세 유아 (단체접수)
- 참가인원 : 1회 25명 이내 / 년 30회
- 비 용 : 무료
- 내 용
 - 1차(단체) : 구강보건교육, 위상차현미경 통한 입안세균 관찰, 치면착색 테스트 및 잇솔질 체험, 구강검사, 식이조절 교육, 흡연 예방교육 등
 - 2차(개별) : 건강한 영구치 치아홈메우기 무료 시술(당해년도 참가자)
- 신청방법 : 팩스(481-3784) 또는 방문 접수
 - ※ 연간 30회로 접수 시간별로 선착순 접수 받으며, 운영 일정은 전화로 협의 조정함.
 - ※ 전년도 미 실시 기관 우선
- 문 의 : 상록수보건소 구강보건실 ☎481-5996,5997

2015년 은빛둥지 수강생모집

기초부터 시작하여 전문가로 재탄생하는 노인ICT 평생학습원 은빛둥지가 2015년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컴퓨터기초반 : 한글과 인터넷(3개월 과정) / 20명
 - 포토샵 : 초급반, 중급반, 디자인(3개월 과정) / 각 20명
 - 방송반 : 방송기획, 각 동 리포터(3개월 과정) / 25명
 - 디지털사진반 : 사진촬영, 이미지 처리(3개월과정) / 20명
 - 동영상 제작 : 동영상 기획, 촬영, 편집(1년과정) / 20명
- 교육기간 : 2015년 2월 ~ 12월 / 수시모집
- 모집대상 : 안산시민 누구나
- 문 의 : 은빛둥지 (☎ 031-438-4088)
E-mail : yesrha@naver.com

‘A+ 영재태교’ 1~2기 주간 출산준비교실

“행복한 임신, 편안한 출산, 건강한 아기”

단원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한 1기~2기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합니다.

- 대 상 자 : 16주 ~ 32주 보건소 등록임신부 30명
- 장 소 : 단원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
- 수 강 료 : 무료
-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 선착순 접수
- 교육일정 : 1회기 4주 프로그램(매주 월요일 오후 3~5시)
- 문 의 : 단원보건소 모자보건실 ☎481-2552, 2573
- 운영기간 : 1기 (3.9 ~ 3.30) / 2기 (4.6 ~ 4.27)
- 접수일자 : 2월 23일 ~ 2월 27일

2015년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 납부가 편해집니다

- 납부고지서,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 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현금입출금기에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만 넣으면 전국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을 조회·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한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인터넷 뿐만 아니라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단원어린이도서관 3월 주말 영화상영

“가족과 함께 영화 관람으로 즐겁고 유익한 주말 오후시간 보내세요”

〈 주말영화상영 프로그램 〉

3월 7일 (토)	3월 14일 (토)	3월 21일 (토)	3월 28일 (토)

안산시 관산도서관(단원어린이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즐겁고 유익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단원어린이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어린이들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관산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문화행사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연중 매달 주말 영화상영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원어린이도서관(☎481-38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어린이도서관 3월 주말 영화상영

“가족과 함께 영화 관람으로 즐겁고 유익한 주말 오후시간 보내세요”

〈 주말영화상영 프로그램 〉

3월 7일 (토)	3월 14일 (토)	3월 21일 (토)	3월 28일 (토)

안산시 감골도서관(상록어린이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즐겁고 유익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상록어린이도서관 1층 어울림방에서 어린이들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감골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문화행사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연중 매달 주말 영화상영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어린이도서관(☎481-26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